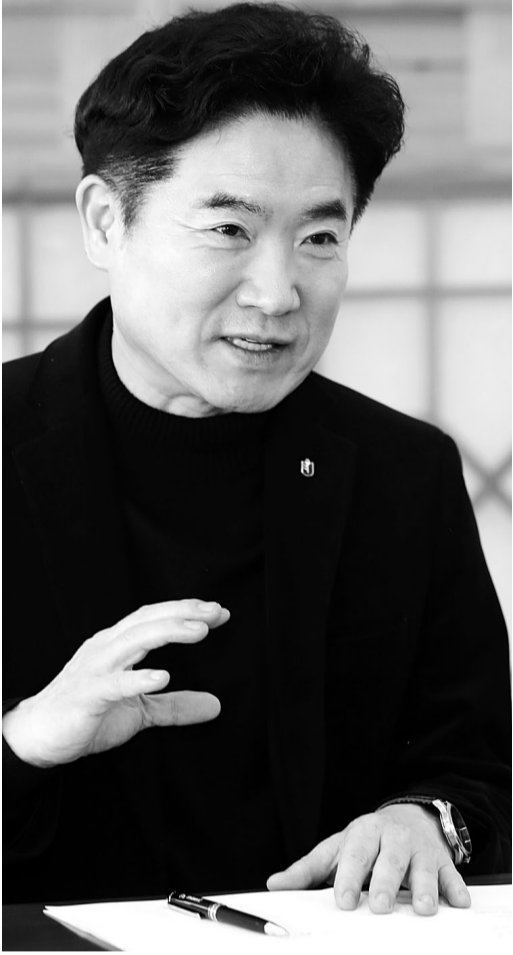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 교육, 전남교육이 시작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지역의 생존을 지켜 낼 열쇠는 교육이라고 확신합니다.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 지속가능한 발전의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2024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를 100여일 앞둔 7일 광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박람회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전남교육의 자신감”이라며 “지역 중심 교육으로 미래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의 일문일답.
-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미래교육 모습은.

▲ 예측 가능한 미래 전망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급격한 과학·융합기술의 발달, 사회·문화적 변화, 환경생태계의 위기를 비롯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우려도 있다.

이와 같은 변화와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기회와 시작으로 만드는 데 교육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에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사람을 줄이고, 지역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 중심 교육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고자 하는 미래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이 박람회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에 최적화되는 작은 학교와 적정 학생 수 규모가 유지되는 학교를 미래교육의 모델로 제시하고, 교육과 학교의 기능을 지역 속에서 회복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질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받고, 지역과 함께 만드는 일자리에서 정주하여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전남형 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

- 공동주최 기관인 교육부와 전남도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가.

▲ 교육부, 전남도 간 협업체 성숙적인 박람회 개최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박람회 개최 기간 내내 교육부 주관으로 한·OECD 국제세미나가 열려, 미래교육의 방향과 국제교육 협력에 대한 비전 논의 및 토론의 장이 펼쳐지며, 이외 전시 분야에도 교육부가 정책 부스 운영에 참여하여 미래교육 정책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해외 연사 및 해외 교육리더들을 초청 시 교육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도 지방정부 발전 전략과 지역교육 간 연계 강화하기 위해 정책부스 운영에 참여하며, 개최인 여주시와도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정·재정적으로 협업체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 전남도와 더욱 긴밀한 협업체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업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관람객 확보 방안은

▲ 박람회장으로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콘텐츠와 볼거리를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미래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 전남교육이 가진 경쟁력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이유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글로벌 미래교실’을 2-3월 중 전남 동·서부 권역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박람회장에서 선보일 동일 모델로,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길러콘텐츠를 미리 볼 수 있어 큰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박람회의 가치와 의의, 핵심 콘텐츠들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홍보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 그간 전남교육청 및 산하기관이 개최해 온 이공언어 말하기 대회, 로봇대전, 전남 창의·도전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교육축제가 박람회를 기점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교육가족들은 물론, 도민, 타 시도 관람객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 박람회 개최 이후 성과나 콘텐츠의 사후 활용 방안은?

▲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대전환을 이룰 신호탄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박람회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교육의 변화는 시작되었고, 박람회가 끝나면 그 변화의 물결은 학교 현장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특히, 이번엔 아쉽게 준비하고 있는 ‘미래교실’이 박람회 이후에도 구현되고, 전남교육 현장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박람회장에 구축한 초·중·고 각 1학급씩의 미래교실을 행사 후에는 전남 각 권역 별로 설치해 학생들이 언제든지 미래수업을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수업모델을 실제 학교에 적용시켜 미래교육을 앞당기고자 한다. 이 외에도 ‘글로벌 교육감 네트워크’를 창설해 미래교육 방향에 뜻을 함께할 교육리더들이 박람회 이후에도 온·오프라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며 ‘글로벌 미래교육’의 동력을 살려 나가겠다.

/김대성 기자 bigkim@



박람회장에 구현될 미래교실 예상도(가운데). 고흥 학교 교실과 도서관.



“미래형 교육모델 박람회에서 확인하세요”

지역과 함께하는 공생교육, 전남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전남도교육청이 아쉽게 준비하는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는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중심 미래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구현하는 장으로 치러진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최근 도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를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넘어 지방시대 대전환을 이끌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박람회를 통해 지역이 곧 세계이고, 세계가 지역인 ‘글로벌 교육’의 실천적 모델을 공유하겠다”고 천명했다.

박람회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린다.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전시·체험·학술·교류 한마당 행사로 펼쳐진다.

박람회는 디지털 대전환시대, 지역 중심 공생교육으로 세계 시민을 양성하는 ‘미래교육의 대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도교육청은 박람회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기후위기,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공생의 ‘글로벌 교육’을 활짝 열어간다는 복안이다.

특히 지금까지 담론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미래교육’이 지역 중심 교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현실과 만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글로벌 교육이 손조름에 이뤄지면 지속가능한 지역교육, 디지털기반 교육, 공생의 교육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이번 박람회의 길러 콘텐츠는 미리 보는 ‘글로벌 미래교실’이다. 초·중·고교 각 1학급이 하나의 모델로 제시되는 ‘글로벌 미래교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5월29일~6월2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 전시·체험·학술·교류 디지털 대전환·기후위기·지역 소멸 등 극복 국제교육관 25개국 참여...미래 수업 현장 다채

실 운영관’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미래교육 과정을 토대로 총 48시간 수업을 실제 진행한다. 각 교실에는 해당 수업 모형에 대한 설명이 관람객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박람회 현장과 해외 현지 교실을 연결한 프로젝트 수업,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융합 수업 등 다양한 주제의 미래 수업 현장도 만날 수 있다.

‘글로벌 미래교육 전시’는 정부기관과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대한민국교육관, 국내외 우수 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관(에듀테크 밸리), 25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교육관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교육관은 전남도 미래교육 실천사례와 각 시도 및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관람·체험하는 장소로 꾸며진다. 맞춤형 교육, 지역 공생 교육생태계 구축, 다양한 문화·소통 글로벌 교육 등 세 개의 카테고리에 맞춘 각 교육청별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교육청은 전남의 미래교육 방향과 실천 사례, 글로벌 교육 역점 과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남교육관’의 전시 개요를 확정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지역의 서사가 글로벌이 된다’를 주제로 한 전남교육관은 ▲내 삶의 터전 ▲지역과 함께하는 공생 교육 ▲함께 여는 미래 ▲나의

미래 등 총 네 개의 전시콘텐츠로 꾸며진다.

특히 자율형 미래교육선도지구, 전남형 미래학교, 독서인문교육, 공생의 환경교육 등 다양한 주제가 각 섹션별 콘텐츠로 구현될 예정이다.

기업관에서는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을 만날 수 있다. 세계적 IT기업이 참여하는 플랫폼관에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래기술 수업 공간이 구현된다. 에듀테크관에는 참여기업들이 AI(인공지능)·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교육 솔루션을 펼쳐 보인다.

국제교육관에서는 참가 교육선진국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래교육 전시·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박람회에서는 세계의 교육리더들이 강사로 나서 미래교육의 방향, 교육자치의 경쟁력, AI 디지털 발전과 학교 교육, 다문화사회의 세계시민, 기후환경·생태교육 등을 주제로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강연을 펼친다.

각국의 미래교육 정책을 공유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는 콘퍼런스가 호주·캐나다·독일·튀르키예·모로코·베트남 등 각 국가별로 운영된다. ‘K-POP’ 특별 공연을 시작으로 박람회 기간 문화예술, 국제교류, 축제의 한마당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참가국의 대표 전통 문화·놀이·의상·음식 등도 즐길 수 있다.

박선미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추진단장은 “이번 박람회는 교육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해답임을 보여주는 논의의 장”이라며 “처지가 비슷한 세계의 로컬과 교류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는 출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의료와 소방 등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이 준비하고 점검해 성공적인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